

시름 깊어지는 與 대선주자들 “재보선 지면 힘든 싸움 될 것”

與 “이러다 2대 0 될라” 위기론...이낙연 발등에 불 ‘심판선거 걱정’ 이재명 “국민 신뢰 흔들려...위기” 정세균 복귀 노란불...임종석 ‘박원순 엄호’ 책임론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뒤처지는 판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與 “이러다 2대 0 될라” 위기론... 이낙연 발등에 불

민주당은 최악의 여론조사 결과를 연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5일자 매일경제와 MBN 의뢰 한길리서치 재보선 여론조사(22~23일)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오세훈 46.3% 대 박영선 25.3%, 부산시장은 박형준 58.8% 대 김영춘 29.3%로 집계됐다.

26일자 한국갤럽 3월 4주차 (23~25일) 여론조사에서 재보선과

관련해 ‘정부 지원’ 응답은 33%, ‘정부 견제’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견제론은 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선 61%에 달했고, 부산·울산·경남도 60%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선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선거전을 지휘하고 있다. 더욱이 대표 시절 전당원투표까지 거쳐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을 주도했다.

대선주자 중 재보선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



(왼쪽부터)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 붕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서 한층 더 절박한 셈이다.

‘심판선거 걱정’ 이재명 “국민 신뢰 흔들려...위기”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보선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선거 이후 다가올 후폭풍의 영향권 안에 위치해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대로 인

한 민심이반이 ‘정권 심판 선거’ 구도를 불러온 상황에서 차기 대선까지 심판론이 이어질 경우 이 지사의 개인기와 관계없이 정권 재창출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형국이다.

당장 정 부여당 지지율이 동반추락하며 이 지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밀려 대선주자 지지율 2위로 내려앉았다.

이에 이 지사도 측면 지원에 나서 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박영선 후보와 ‘우연

히’ 마주쳐 함께 산책을 했다.

25일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년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 지지도가 떨어지면 대선주자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주자가 당의 중심을 잡기 전까진 힘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세균 복귀 노란불...임종석 ‘박원순 엄호’ 책임론

정세균 국무총리쪽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정 총리 측은 재보선 이후 ‘4말5초’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나 차기 대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재보선에서 패할 경

우 후임 총리로의 바통 터치가 압축에 부딪힐 수 있다.

반면 잠룡으로서 정 총리의 입지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문 주류 후보를 내세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정 총리의 빠른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잠룡’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정에 대한 엄호성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왔다. 당내에선 본인의 대권 행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퍼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제기될 소지도 감지된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보선에서 여당이 졌을 경우 여권 내 권력구조가 옮겨가며 일부 후보는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는 모두 힘든 싸움 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김태년 “오세훈, 후보직 사퇴 공식 요구...땅 측량 사실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보직 사

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처가 땅으로 이익을 봤으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했다. 내곡동 땅 의혹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제 마땅히 자신의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을 측량한 사실이 밝혀졌다. 증언자들은 오 후보와 인사도 나눴다고 증언했다”

며 “오 후보 측은 주민들이 본 사람은 오 후보가 아닌 큰 처남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학교수인 처남 사진을 보면 오 후보와 인상과 체형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증언이 구체적이든 또다시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 여전히 내곡동 땅에 간 적도 없고, 측량도 안 했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의

사태를 반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중증치매환자’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헌신을 조롱하고,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오 후보는 우리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능력이 없다”며 “막말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과 이용빈 의원이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미얀마 응원 사진전’에 방문해 광주에서 펼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응원에 힘을 실었다. (사진=이용빈의원실제공)

뭇 측 “KBS 내곡동 측량 보도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토지 측량 입회인은 오세훈의 처가 식구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KBS의 허위 보도는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은 악의적 오보”라며 “선거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 편파 방송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측량 관계법령과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 입회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며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 측량이 이뤄진 사실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책임을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인근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훈캠프 제공)

국회의원들,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른다

미얀마 민주화투쟁 응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로 미얀마 민주화투쟁을 응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미얀마 군부의 살상행위를 규탄하고 민주화투

쟁을 응원하는 뜻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얀마를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 쉼터는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시민, 작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윤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